그대는 자비보살

부산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

수좌에서 마을 스님으로…원오사에 피어난 자비

은사 당부에 수좌에서 주지로
아이 꿈 품고 소외 이웃 돌봐
10년째 '희망복돼지' 나눔 이어
문턱 낮춘 불사로 '모두의 도량'
마을을 수행공동체로 잇는 원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이 경내 포대화상과 나란히 섰다. 1997년 통도사 극락암에서 명정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비구계 수지 후 봉암사, 남국선원, 벽송사 등 전국 제방 선원에서 14안거를 성만했다. 2008년 원오사 주지 취임 이후 (재)명정장학재단 이사장과 명정지역아동센터 대표를 맡아 소외계층 아이들을 위한 보살핌을 이어 왔다. 이러한 공로로 해운대 애향대상을 비롯해 해운대구청장 봉사상, 부산경찰청장 표창, 해운대경찰서장 봉사상 등을 받았다.

"공부하는 수좌에게 주지를 살라고 하려니 미안하긴 한데…."

선방에서 수좌로 참선 수행만 7년. 갑자기 주지 소임을 맡게 됐다. 은사인 통도사 극락암 명정 스님이 병환으로 입원하며 남긴 당부를 차마 물리칠 수 없었다.

2008년, 수좌 정관 스님은 부산 반송에 자리한 원오사를 찾았다. 산자락을 다듬어 지은 법당과 낡은 요사채가 스님을 맞았다. 어르신들은 가파른 경사에 발길을 돌리기 일쑤였고, 젊은 신도들도 다리가 아프다고 투정을 부렸다.

"누구나 편히 찾는 사찰이면 좋겠습니다."

열린 부처님 도량이자 마을의 보금자리가 되기까지 19년이 걸렸다. 원오사는 이제 법당까지 곧장 오를 수 있는 엘리베이터와 주차장, 공양간, 요사채, 지장전을 갖춘 도량이 됐다. 뒷산에는 차나무를 심고 산책로를 조성해 누구나 여유롭게 걷고 쉬어 갈 수 있다.

산중 수좌에서 마을 수행자가 된 스님은 암 환자의 아픔을 보듬고,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 온기를 전하고, 아이들의 꿈을 응원한다. 2월 24일 원오사에서 만난 정관 스님의 넉넉한 웃음과 넓은 품은 어느새 포대화상을 닮아 있었다.

아이들 허기 채우는 '안심 도량'

정관 스님이 원오사에서 마주한 것은 산자락보다 더 가파른 아이들의 절망이었다.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었다. 스님은 주변의 만류에도 주지실과 차실을 내어 주었다.

처음 사찰을 찾은 아이들은 거칠고 불안했다. 단 5분도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고 몸을 비틀던 아이들에게 스님은 설법 대신 따뜻한 고봉밥을 내밀었다. 가정의 해체와 빈곤으로 제때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산처럼 쌓인 밥은 '안심(安心)'의 다른 이름이었다.

"아이들에게 꿈을 물으니 그저 '보통 사람 되는 게 꿈'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참 마음 아팠어요. 어떤 아이는 그간의 허기를 채우듯 밥을 고봉으로 쌓아 먹기도 했지요. 그렇게 한 6개월을 따뜻한 밥을 먹이니 그제야 아이의 눈빛이 안정을 찾고 식사량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 차 한잔을 나누니 비로소 마음도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찻잔을 손에 쥔 아이들은 점차 자신을 마주하는 법을 배웠다. 사찰에서 시작한 다도와 미술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정서적 보루가 됐고, 무뚝뚝했던 아이를 당당한 사회인으로 키워 내는 촉매가 됐다.

'희망복돼지'로 전하는 온기

자비의 물결은 사찰을 넘어 마을의 가장 낮고 소외된 곳, 말기 암 환자들의 방으로 흘러갔다. 정관 스님이 호스피스 현장에서 목격한 '소외된 죽음'은 10년째 이어 오고 있는 '희망복돼지' 나눔의 씨앗이 됐다. 신도들이 "모든 이가 건강하고 행복해지기를" 발원하며 모은 원력은 어느새 후원자 2000여 명, 총 후원액 1억 4000만원이라는 거대한 복전(福田)을 이뤘다.

"말기 암 환자들은 체력이 바닥나서 병원 한 번 가는 것이 고역입니다. 한두 시간씩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택시 타고 다니시라'며 교통비를 드리고 기력을 회복할 수 있게 소고깃국을 끓여 드리고 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주라'며 사양하는 분도 계신데, 그 마음이 곧 보살의 마음 아닐까요."

가파른 문턱 낮춘 '열린 도량'

아이들의 몸과 마음의 허기를 채우고, 아픈 이들의 손을 잡아 주며 '마을로 찾아가는 법당'을 일군 스님은 또 다른 불사를 계획했다. 바로 도량의 가파른 문턱을 낮추는 것.

원오사는 입구에서 대웅전 마당까지 아파트 8층 높이의 가파른 산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쌀을 이고 법당을 오르는 노보살들의 가쁜 숨과 굽은 허리가 화두가 됐다.

"가파른 계단을 쌀이며 과일을 이고 힘겹게 오르는 어르신들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올라와서도 자리가 없어 천막 아래 젖은 바닥에서 공양을 드셔야 했지요.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도 도량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등이자 자비의 시작이라 믿었습니다."

스님에게 중창 불사는 중생의 고단한 무릎을 어루만지고, 도량의 문턱을 낮춰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실천적 수행이었다.

2022년 기공식을 거쳐 2023년 문을 연 명상문화센터는 척박한 지형을 자비의 공학으로 극복한 결과물이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세워진 센터의 핵심은 공간의 유기적 연결에 있다.

가장 파격적인 설계는 엘리베이터와 대웅전을 잇는 '구름다리'다. 이제 신도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내려, 구름다리를 통해 곧장 대웅전 앞마당에 들어설 수 있다. 넉넉해진 공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부방과 명상실이 들어섰고, 주민들은 언제든 들러 차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공간이 바뀌니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힘들게 계단을 오르던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 부처님을 향한 환희심이 채워졌지요. 도심 사찰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숨쉬는 플랫폼이어야 합니다. 문턱을 없애니 비로소 사람들이 부담 없이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비워 우리를 채우다

인터뷰를 마치며 스님은 '진공묘유(眞空妙有)'와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起心)'의 가르침을 전했다. 30년 가까운 출가 생활에 그 뜻이 더욱 가슴에 새겨진다는 스님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오직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맑은 마음 하나를 내는 것, 그것이 가장 치열한 정진"이라고 말했다.

스님의 서원은 이제 사찰을 넘어 마을 전체를 하나의 '수행공동체'이자 '가족'으로 묶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사찰에서 함께 정진하며 서로의 마지막을 지켜 주는 '수행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 주는 '법(法)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 모델이다.

"저는 그저 아이들의 밥그릇을 채우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손을 잡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피보다 진한 인연의 다리를 놓게 됐습니다. 나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함께 웃는 상생의 꽃을 피우는 것이지요. 그 평범하고도 위대한 풍경을 완성하는 것이 제가 원오사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정관 스님은 오래 인연을 이어 온 이대호 선수와 함께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정관 스님과 명정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강민호, 이대호 선수를 만나 환하게 웃고 있다.



정관 스님이 지역 내 홀몸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며 건강을 살피고 있다.



2023년 4월 29일 원오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린 중창 불사 준공식.



원오사 명상문화센터 전경. 엘리베이터와 구름다리를 통해 누구나 편하게 도량을 오갈 수 있다.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광불교
010-9446-1862 | 010-2788-7270
031)768-7270 | 031)768-7271
E-mail : hskhsg@naver.com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연등 자동 승강장치 시공
연화등
공단등

